

美國 大學教育의 危機

李 鉉 清

(釜山大 教育學科 助教授)

급격한 社會·技術·文化의 변화는 대학의 機能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대학의 임무가 이들 變化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현대 社會는 社會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社會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제를 개발해야 할 시점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볼 때 현대의 대학은 많은 위기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I. 現代社會와 大學

현대사회는 情報技術社會, 文化的 民主理想社會(cultural democratic society), 新多元의 社會(new pluralistic society), 脫衣의 社會(naked society) 및 敎育 인플레이션 시대 등의 여러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들 特性과 연관지어 볼 때 변천하는 文化的 狀況 속에 놓인 社會機關으로서의 大學은 보다 複合的인 役割을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과학과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技術의 급격한 變化와 敎育 기회의 확대 등은 敎育의 質에 대한 의문을 제기케 되었으며, 이는 주로 經濟 社會的 혹은 文化的인 不平等의 문제와 결부시켜 논의되어 왔다.

後期 産業社會의 한 특징은 '지식 주도적'이라는 점에 있으며 교육받은 노동력을 개발하고 보존하는 일은 大學의 주요한 使命으로 인정되고 있다. 특히 人口의 변동, 기술의 급속한 變化,

經濟的 침체, 國際化 社會로의 변모, 제능 중심 社會(meritocratic society)로의 전환, 삶의 질에 대한 再照明, 情報·技術社會로의 移轉 등은 급격한 社會·經濟·文化的 變化를 수반케 하였으며 직업과 학문의 영역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컴퓨터의 경우만 해도 '제 5세대 컴퓨터'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직업의 영역에서도 건강 관리자(health designer)라는 직종까지 구분되어 '제 4의 노동시대(The age of 4th Labor)'라는 말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文明的 變動과 文化的 變動은 물론 社會的 變動을 가져왔으며 문화 속의 大學은 그 機能과 役割에 있어 큰 전환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대학은 사회 적응과 관련하여 볼 때 人間의 自覺된 欲求(felt-need)를 통해 사회적으로 有意한 變動을 주도해야 하는 社會變動機關(change agent system)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은 물론 社會分化和 專門化에서 비롯된 構造의 分化에 대한 수렴체제(tension-management

美國 大學教育의 危機

李 鉉 清

(釜山大 教育學科 助教授)

급격한 社會·技術·文化의 변화는 대학의 機能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대학의 임무가 이들 變化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현대 社會는 社會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社會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제를 개발해야 할 시점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볼 때 현대의 대학은 많은 위기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I. 現代社會와 大學

현대사회는 情報技術社會, 文化的 民主理想社會(cultural democratic society), 新多元의 社會(new pluralistic society), 脫衣의 社會(naked society) 및 敎育 인플레이션 시대 등의 여러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들 特性和 연관지어 볼 때 변천하는 文化的 狀況 속에 놓인 社會機關으로서의 大學은 보다 複合的인 役割을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과학과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技術의 급격한 變化와 敎育 기회의 확대 등은 敎育의 質에 대한 의문을 제기케 되었으며, 이는 주로 經濟 社會的 혹은 文化的인 不平等의 문제와 결부시켜 논의되어 왔다.

後期 産業社會의 한 특징은 '지식 주도적'이라는 점에 있으며 교육받은 노동력을 개발하고 보존하는 일은 大學의 주요한 使命으로 인정되고 있다. 특히 人口의 변동, 기술의 급속한 變化,

經濟的 침체, 國際化 社會로의 변모, 제능 중심 社會(meritocratic society)로의 전환, 삶의 질에 대한 再照明, 情報·技術社會로의 移轉 등은 급격한 社會·經濟·文化的 變化를 수반케 하였으며 직업과 학문의 영역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컴퓨터의 경우만 해도 '제 5세대 컴퓨터'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직업의 영역에서도 건강 관리자(health designer)라는 직종까지 구분되어 '제 4의 노동시대(The age of 4th Labor)'라는 말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文明的 變動과 文化的 變動은 물론 社會的 變動을 가져왔으며 문화 속의 大學은 그 機能과 役割에 있어 큰 전환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대학은 사회 적응과 관련하여 볼 때 人間의 自覺된 欲求(felt-need)를 통해 사회적으로 有意한 變動을 주도해야 하는 社會變動機關(change agent system)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은 물론 社會分化和 專門化에서 비롯된 構造의 分化에 대한 수렴체제(tension-management

institution)의 역할까지 수행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금껏 大學이 수행해 온 고급인력의 공급이나 經濟發展에 대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식의 창조와 보급 및 조직적인 고등교육을 수행하는 주된 사회기관으로서의 役割이나 任務에 있어서 大學은 오늘날 公的인 信賴를 얻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그 임무나 社會的 機能에 있어 '지식의 創造와 보급' 및 '高等의 교육'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大學은 다른 교육기관과 구분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급격한 社會·技術·文化的 變化는 大學의 機能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할 필요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大學의 任務가 이들 變化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에 現代社會는 社會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社會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제(new mechanisms)를 개발해야 할 시점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현대의 大學은 많은 危機的 要素를 내포하고 있다 하겠다.

이 글에서는 大學 自體가 안고 있는 내부적 문제와 大學 外的인 문제로서 社會的 要因을 중심으로 하여 美國 大學의 危機를 論議하고자 한다.

II. 美國 高等教育의 危機 要因

위에서 언급된 現代 美國 高等教育의 危機는 크게 세 要因으로 大別될 수 있다. 즉 첫째는 2次大戰 이후의 급격한 量的 팽창이요, 둘째로는 오늘날의 급격한 技術과 社會變化에 따른 大學의 역할 변화이며, 셋째로는 大學이 수행하는 연구 및 교육의 질과 관련된 문제이다.

1. 大學의 量的 팽창

미국 大學人口의 증가는 스포트닉 쇼크 이후에 급격한 증가를 이루어 왔다. 특히 대다수 大學間의 多樣性과 文化的 측면에서 特性과 差異에도 불구하고 이들 大學이 추구하는 가치나 주된 임무수행이 外的 現實을 외면한 大學의 內的 要求에 단 忠실한 팽창을 해 온 까닭에 社會的 欲求와는 乖離되어 왔다는 점에서 위기적 要素를 지적할 수 있다. 大學 人口의 증가면에서 보면 1940년 이래 미국의 公立 大學生 人口는 80만 명에서 9백만으로, 大學就學 연령층의 불과 5%

에 불과했던 大學人口가 50%로 급증을 하여 왔다. 비록 이러한 大學人口의 變化가 종래의 研究中心 大學의 확충에서 그 주요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해도 기본적인 重要的 變化는 '소수를 위한 大學教育'에서 '大多數를 위한 大學教育'으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급격한 양적 팽창에 비해 大學의 가치와 우월성에 대한 관점에서 볼 때 거의 모든 大學들이 社會的 變化에 부합하는 교육의 機能을 수행치 못하고 있는데, 그 理由는 대략 두 가지 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는 스포트닉 쇼크 이후의 양적 팽창이 주로 연방정부로부터의 科學과 工學系統의 研究를 위한 막대한 지원과 公衆보전 및 빈곤의 극복을 위한 社會科學에 대한 집중적 연구지원에 따른 부수적 소산이었다는 점이다. 둘째 要因은 전혀 별개의 새로운 大學 창설이 아니라 기존의 大學 기구 확대결과에 따른 量的 팽창과 分校 형태 등을 취한 양적 팽창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學部나 大學院 教育이 공히 직업 준비 중심의 교육으로 치우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곧 그들의 教育的 熱情이나 교육적 이해가 經濟的 再生産에 力點을 두어 왔다는 점을 의미하며, 이에 따른 교수내용이나 교수요원의 자질 등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大學팽창은 아무런 시험단계를 거치지 않았고 양적으로 팽창된 大學들은 어려움 없이 公적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결과로서 연구와 사회봉사기관으로서의 이들 大學의 當爲性 문제가 부각되게 되었다.

大學의 양적 팽창의 관점에서 볼 때 社會적 欲求에 완전히 부합하지 못한다 해도 統合된 교육적 또는 학구적 目標를 달성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오늘날의 大學이 危機에 처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大學 敎員數의 절대적 증가와 학생 구성요인의 기본적인 변화로 인한 大學教育의 質의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 첫째 이유는 이미 25만명을 헤아리는 전임 교원이 아주 의미 있는 연구를 해낼 수 있는 學者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는 문제이다. 쿤(Tom Kuhn)이 지적하듯이, 실제 創意的인 연구 영역이 충분치 못하다는 실정이다. 이는 수

많은 論文들이 二流水準이거나 사소한 內容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며, 독창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學術적으로 출판키 위해서는 學術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지적해 준다.

지나친 양적 成長에 따른 非合理性의 문제로는 學部나 大學院을 막론하고 급격한 大學人口의 팽창에서 비롯된 學生의 특성 및 그들의 욕구가 변모되었다는 점이다. 소위 학령수준의 20% 정도까지 大學生 人口를 차지하였던 때와 오늘날의 大學의 본질은 크게 변모되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요인으로서 人文敎育과 유용한 敎育(usable education)간의 관계 구명이다. 카디날 뉴우먼(Cardinal Newman)이 지적 하듯이, “유용성과 쓸모 있다는 것은 고등敎育을 측정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라는 순수한 이상을 받아들이는 데도, 화이트헤드(Whitehead)의 주장처럼 ‘敎育은 知識을 활용하는 方法’을 習得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막대한 社會的 투자기관으로서, 또는 다양한 社會·경제적 배경을 가진 고도의 지식 연마를 위한 다양한 학생집단을 가진 大衆 高等敎育機關으로서의 大學敎育에 대한 유용성의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나 個人의 차원에서 볼 때 심각히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즉 ‘쓸모 없는’ 大學敎育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위에 언급된 바대로 現代의 大學이 안고 있는 基本的 問題는

- ① 大學人口의 급격한 증대로 인한 敎授와 學生集團의 변모에 따른 문제
- ② 대학의 學問性과 결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점으로서 研究活動의 質의 문제
- ③ 人間形成과 관련된 敎養敎育과 職業人養成과 관련된 ‘유용’한 敎育과의 관련성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새로운 지식의 보급 및 조직적이고 高度化된 敎授法, 대학인구의 엄청난 양적 팽창, 기술과 社會的 變化 등의 문제와 관련지어 볼 때 大學이 안고 있는 危機를 인식할 수 있겠다. 특히 “무엇이 유용한 敎育에 기여할 수 있는가?”, “어떻게 大學敎育의 결과가 個人과 社會에 유익한 結果를 줄 것이며 엄청난 敎育에

대한 투자에 보상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와 결부하여 볼 때 위기적 요소는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검토되어야 할 문제는 ‘직업적’이라는 개념과 ‘유용한’ 개념의 혼돈이 없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즉 전문인 양성대학의 敎育課程과 人文社會系統의 교양교과목의 敎育과정간을 고려해 볼 때 ‘유용한’ 관점에서의 差異는 없는 것이다. 사실 전문인 양성대학 敎育 프로그램은 특히 大學院의 과정에서는 더욱 심한데, 실제적으로 전문적이지만 직업적이지도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補充코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敎育目標을 전문적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오히려 이론적 전문가(academic specialist)의 양성에 역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도 일정기간 동안의 계속적인 補充訓練 없이는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물론 화이트헤드가 지적했듯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법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겠으나, 아지리스(Argyris)나 쉰(Schön) 및 일루울(EHul) 등이 지적한 바대로 전문적업 훈련에 있어서의 기술의 지나친 강조 때문에 전문직을 위한 敎育이, 실제 장면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적절한 組合과 수정 능력을 개발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상할 수 있는 기술의 확인에 치우치고 있는 실정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결함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전문직’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 전문인을 양성하는 敎育課程이나 프로그램 자체뿐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대로 學習者로 하여금 지식을 활용하게 하는 기법을 배양시키는 데에 보다 큰 문제점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오늘날 대학敎育은 직무수행의 효율성과 관련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敎育과정과 敎育 형태를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비단 專門職을 위한 敎育뿐 아니라 人文社會敎育 또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大學은 認知的 合理性에 最高의 價値를 부여하는 機關이다. 그러나 認知的 要素는 많은 상황들을 分析키 위해 필요한 기초적 요소이기 때문에, 린드블롬(Lindblom)이나 코헨(Cohen)이 지적한 바대로 지식이 전문적 社會적 문

제해결 능력에 제한점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쓸모 있는 지식(usable knowledge)’의 문제를 주시해야 되리라 믿는다. 따라서 단순한 知識이나 分析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이 아니라 직업적 또는 사무적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능력 배양에 力點을 두어야 하리라 본다. 이런 측면에서 대학교육이 안고 있는 위기적 요인을 찾을 수 있다. 교육과정 개편에 있어서는 多樣한 方法 등이 있었으나 앞서 지적한 대학교육의 문제점과 관련지을 때, 基本的으로 考慮되어야 할 교육과정 편성시의 유의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1) 이론과 실제 경험의 보다 밀접한 연계성
- (2) 교육방법과 전문기술 습득에 대한 제한점과 유익성에 대한 보다 치밀한 검토
- (3) 새로운 敎習方法을 동원한 문제해결 능력의 강조
- (4) 個人的 기법의 영역을 종합한 팀워크에 대한 보다 훌륭한 준비 수준
- (5) 모든 전문적 활동에 있어서의 사회·경제 및 정치적 내용에 대한 관심
- (6) 전문적으로서의 對人關係의 영역과 非認知的 영역에 대한 강조 등을 들 수 있겠다.

따라서 오늘날 大學敎育이 교육과정의 편성에서나 교육의 過程 및 方法 등에서 問題視되지 않을 수 없다. 예로서 人文科學大學의 경우, 일반적으로 一般必須科目, 專攻必須科目과 選擇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비교적 초기에 전공과목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교양과목의 내용이나 성격조차도 전공에 따라 결정되기 마련이다. 이는 곧 학과 중심의 교과과정에서 비롯되는 지적 일관성(intellectual coherence)의 결여를 의미하며 전공 중심의 敎科課程은 제한된 思考領域을 가진 學生을 배양케 되는 위험성을 안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에 학과나 전공이 과목 중심이나 敎習中心의 體系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적 일관성의 결여를 갖게 되며 學問의 깊이의 면에서도 큰 문제점을 안게 된다. 따라서 직업중심주의(careerism)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전공중심 또는 學科中心主義(departmentalism)를 채택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교수 연구 및 교무행정을 위한 단위 구성을 하느냐 하는 문제를 안게 된다.

이는 어느 의미에서 問題中心(problem-based) 또는 미래중심(future-oriented)의 프로그램과 학사행정을 위한 下位單位 구성의 필요성을 의미하며 體系면에서는 단과대학 단위 또는 領域中心(unit-system)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떠한 方法이든 現代社會의 特性으로 볼 때 만족한 解決策을 주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學問間의 단위 구성 또는 중간수준의 專攻強調의 성격이라든지 敎養敎育과 專攻敎育의 安配問題 등의 學習構成의 문제는 특히 오늘날의 美國 大學들이 안고 있는 위기의 要素인 것이다.

2. 大學의 役割 變化

現代의 敎育은 理念的 目標設定에 있어서는 종래의 단순한 自我確立과 관련한 'self'가 아니라, 보다 거시적 입장에서의 직접적, 간접적 自我實現과 관련지어 이해되고 있다. 이는 종래의 敎育哲學的 설명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기초주의나 주지주의나 또는 교육 보수주의나 하는 등의 敎育理念과 관련지워 있다는 뜻으로 大學敎育에 곧 社會變化를 통한 社會改革의 의미가 우선 주어진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의 大學은 危機에 처해 있다고 보여진다.

그 첫째로, 지난 世紀 동안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의 人種再活運動(ethnic revitalization movement)의 所產으로서의 文化的 複合主義(cultural pluralism)와 文化的 民主理想(cultural democracy)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文化的 自由를 실현코자 하는 哲學的 當爲性에서 그 기초를 찾아볼 수 있다. 이 文化的 民主理想의 근간은 모든 사회 구성원, 즉 個人과 集團의 政治的 自由와 같이 文化的 自由도 누려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社會와 技術의 급격한 變化에 따른 地域文化와 大學文化의 격차에서 오는 갈등의 문제는 現代 大學이 안고 있는 危機的 要素의 하나라 볼 수 있다. 특히 人類社會의 효율적인 市民을 양성하는 대학의 기능은 複合的 文化間의 統合·分化를 통하여 部分文化間의 不均衡 現象이나 문화적 격차 현상을 해소케 하는데 있다 하겠다.

둘째로, 기술의 變化에 따른 現代社會에서의

大學教育의 문제를 고려할 때, C.I.M.(Curriculum, Instruction and Media) 문제, 學習形態의 문제, 學급규모와 講義場所의 문제, 學習資料의 구비 문제, 教授의 자질 문제, 도서관의 역할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된다.

세계로, 大學은 오늘날의 급격한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學問의 큰 전환기를 맞게 된다. 이는 종래의 관념에서 보는 진공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복합진공 형태, 예컨대 '생물리학(biophysics)'이나 '심리생물학(psychobiology)'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학문이 合成 또는 分化되는 시기에 있다. 이러한 추세의 수용 과정에서 美國 大學들의 危機要素를 發見할 수 있다.

네째로, 教育環境의 지속적 變化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들 요소들로서는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 '인구증가', '생태계의 變化', '심한 오염', '수명의 연장', '자원 중심의 社會' 및 '국제 사회화' 등의 要因 등이 있다. 이러한 自然環境, 社會環境 등의 變化는 大學教育의 추세 및 인력수급을 결정짓는 것으로서 전 공간, 학문간 특히 敎養教育과 專攻教育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다섯째로, 급격한 社會變化나 技術의 發展은 社會的·文化的 變動을 초래하게 되며 이는 곧 大學教育의 社會的 機能의 변모를 야기시키게 된다. 現代의 脫衣의 社會의 기본 특징 중의 하나는 '人間의 소외'라든지 자아실현과 관련지어 '自由 속의 不自由' 등의 특징을 갖게 된다. 오늘날 大學은 變化의 수용기관의 역할도, 변화를 주도하는 기관의 역할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함으로써 社會正義 구현이나 人間性 회복의 기능을 수행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의 大學은 가정교육과 하부 교육기관의 교육기능의 약화에 따른 국민의식 개조기관의 역할을 요구당하게 됨으로써 갈등의 要素를 빚게 된다.

여섯째로, 大學의 文化失調現象(cultural deprivation)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大學文化는 엄격한 의미에서 現代社會의 主流文化와는 구분되는 部分文化이다. 부분문화가 갖는 특수한 性格이나 文化 그 자체의 問題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文化의 分化現象에서 오는 大學文

化가 갖는 文化統合의 기능 상실이다. 대학문화의 內容은 그 學問的 基礎的 側面에서나 大學 構成員의 特性에서 볼 때 많은 多樣性を 내포하고 있으나, 어떤 면에서는 大衆文化를 반영하는 '文化的 表皮(surface of culture)'에 불과하게 되어 多樣性 속의 질림 현상을 갖게 된다. 이러한 大學文化 現象은 主流文化나 地域社會 文化와의 差를 가져다 줌으로써 文化創造와 傳受라는 大學의 중요한 使命에 많은 문제점을 가져다 주게 되었다.

일곱째로, 近代化와 産業化의 부산물로서 현대 국가가 처한 문제들과 결부시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 실업 문제, 환경 훼손 및 자원 고갈 등의 經濟的 問題와 범죄 증가와 알콜 중독 및 습관성 약물 남용의 社會的 問題, 現代 社會의 가족제도의 붕괴에 따른 혼전과 혼외 성관계 등 가정의 役割과 관련된 도덕적 문제와 학교교육과 지역사회개발 문제, 매스 미디어와 교육의 관련성 등 교육의 문제 등은 現代社會가 안고 있는 10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이들 중 7개 요인이 대학생들 또는 젊은이들에게 해당됨으로써 현대사회에서 대학이 갖는 社會的 機能은 더욱 加重되고 있다 하겠다.

3. 大學教育의 質과 體制

앞서 언급한 대로 現代 大學은 技術의 급격한 發達과 文化的 多樣化, 社會 經濟的 큰 變革으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이외에 大學이 안고 있는 內部的 要因에서 그 危機의 측면을 發見할 수 있다. 흔히 오늘날의 時代는 '教育의 大衆化 時代(the age of mass education)'라고 지칭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意味는 '學校教育 時代(years of schooling)'의 개념과는 다른 것이다.

大學의 教育은 그 內容이나 教授面에 있어서도, 완전한 직업인을 위한 준비교육에서도, 人間形成의 측면에서도, 社會改革과 文化創造 및 傳達의 측면에서도, 그 機能을 喪失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內部的인 要因들로서는 教育의 自律性, 教育의 責務性(accountability in education), 教育의 탁월성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들과 관련지어 볼 때 大學教育을 위한 體制, 教育

을 위한 投資, 教育의 內容 및 教授-學習體系, 大學生을 위한 서어비스 制度, 教授開發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우선 교육의 탁월성과 관련된 문제로서 이는 비단 중등교육에서만 문제시될 수 없는 것들이다. 흔히 '國家의 危機'라고 지적될 정도로 學生들의 學業成就水準이 저하되어 있다는 것이다. 애로서 2,300만 정도의 미국 成人이 機能의 文盲者이며 10대 가운데 13%가 또한 機能의 文盲者일 뿐 아니라 최근 모병된 군인들 중 25%만이 중학졸업 정도의 읽기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SAT 점수도 급격히 저하되었으며 1975년과 1980년 사이 공립 4년제 대학에서 '기초수학' 교육을 위한 설장이 72%나 증가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현대 美國 大學의 앞날과 그 教育의 質뿐만 아니라, 設講分野, 教授의 養成問題, 大學生의 選拔基準, 大學教育의 內容, 教授工學 및 評價方法 등의 측면에서 大改革 내지는 變化가 불가피하게 됨을 뜻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부분의 美國人들은 land-grant 대학에서 이루어진 연구와 교육이 천연자원 개발과 농업기술 증대 및 產業發達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또 1,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는 信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 대학교육에 거는 희망이 큰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大學이 안고 있는 財政的 곤란을 지적할 수 있다. 오늘날 美國의 大學들은 公立이든 私立이든 모든 재정적 압박 속에 놓여 있다. 특히 레이건 행정부 이데 교육예산 등의 감소로 인하여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대학교육의 기능은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외부로부터의 연구 기금이나 외국에 대한 프로젝트 수행 또는 外國 학생들에 대한 대대적 문호개방 등으로 인한 학생 構成員의 변화에 따른 학생복지의 증대, 연구활동의 위축, 전공의 개폐, 교원의 감소 등을 피할 수 없게 되어 또 다른 大學教育의 危機를 맞고 있다 하겠다.

大學教育 機能의 弱化和 平生教育의 擴大 추세는 대학 또한 계속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불가피하게 되고 정규 프로그램 이외의 off ca-

mpus program이나 extension program과 같은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기구 및 프로그램은 대학의 教育機能面이나 본래의 特性에서 볼 때 教育의 質의 저하를 가져올 우려를 갖게 된다.

다음으로는 大學의 效率性和 관련된 行政體制面에서 볼 때 대학이 現代組織體制의 特性인 官僚化의 특성과 中央集權化 경향을 갖고 있으나 學問的 性格이나 學事管理 등이 컴퓨터화되고 대부분의 意思決定이 委員會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實際的으로 二元體制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직 특성은 中央集權化와 分散化(decentralization)의 문제를 안게 되고 앞서 언급된 off campus program의 증대 등과 연관시켜 볼 때 갈등의 所地를 안고 있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學問의 自律性和 관련지어 볼 때 오늘날의 대학은 그 役割面에서 상아탑적 요소를 상실해 가고 있으며 社會, 經濟, 文化的 要求에 의해 社會와 質이 어느 정도 결정되고 있다. 이는 社會와의 보다 빈번한 접촉을 의미하며 學問의 自律性 또한 社會의 요구와 정부의 인적 개발에 부응해야 된다. 이러한 要因은 학문의 자율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위협을 의미한다.

Ⅲ. 맺는 말

앞서 여러 측면에서 오늘날의 美國 大學들이 안고 있는 갈등의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트레첸버그(Trachtenberg)가 지적하듯, 大學은 '磁氣的 매력'을 지니고 있으나 미래의 大學은 社會階層과 심한 地位의 分化에 따른 역할 수행의 위기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많은 社會分化에 따른 教育的 기대에 대한 부응에 따라 개방된 大學(university without wall) 형태를 갖게 될 것이다.

이는 學習形態의 多樣化和 교육공학의 급격한 發展과 더불어 학습자원센터(learning resource center)의 役割이 강조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는 교수 없는 大學이요, 책 없는 도서관이요, 캠퍼스 없는 大學이요 하는 보다 分化되고 學習者 중심 또는 地域社會 중심의 役割을 수행하게 될 것임을 뜻한다. 이러한 형태의 대학들은 오늘날 美國 大學들이 안고 있는 危機的 要素에 대한 한 해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